

이런 식의 독서추진을

李璟薰

普成社 대표·본지 편집위원

몇해 전 對馬島 여행 중, 그 섬 서남쪽에 있는 '스즈'라는 50호 내외의 작은 어촌의 한 소학교를 견학했다. 전체가 6학년, 학생수 1백명 내외. 우리 일행 세사람은 불시로 교장실을 노크하고, 그 학교의 '독서교육' 방법을 듣겠다는 來意를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례했으나, 교장선생은 선선히 각 학년별 수업안을 모아서 건네주었다. 학교와 校外와의 막힘없는 의사소통에 호감을 갖고 작별을 하려는데, 이왕 왔으니 어린이도서관을 보고 가라면서 앞장을 섰다.

도서관은 교실 2개를 터놓은 넓이었다. 창문이 없는 벽을 따라 서가가 있다. 서가마다 '福康文庫'(후쿠나리문고)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

다. '후쿠나리문고'는 25년 전의 졸업생 永井福康씨가 18년 동안 매주 거르지 않고 학년별로 한두권씩 그 공간에 나온 신간을 평균 5, 6권(특별도서 소포 상한량의 무게만큼)을 사서 보낸 책인데, 그의 이름 두 글자를 따서 명명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장구한 선행에 감복했다. 당장 그의 주소를 적어 받았다. 九州의 別府市에서 '노조미'(희망이라는 뜻) 약국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 길로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갔다. 40전후의 건강한 미남형에 순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치하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내 고향은 아주 작은 어촌이라

서점이 없지요. 나는 그 마을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九州 熊本市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곳 학우들과 전연 말 상대가 안되었지요. 내가 아는 것은 기껏 교과서에서 배운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우들은 그게 아니더군요. 나는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나는 그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발사로 일했는데, 그때부터 지난날 내가 겪은 슬픔을 고향 후배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마침 이웃의 서점 주인과 의논하여 책보내는 일을 부탁했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어린이책 대여섯권이라야 그 값은 한두사람의 한끼 점심값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오히려 고향 어린이들로부터 독후감을 곁들인 감사의 뜻이 담긴 편지를 받는 일로 더 큰 보상이 됩니다."

그의 행위는 절절한 인간애의 극치가 아닌가 한다. 이 말을 옮기면서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게만 느껴진다. 우리나라에는 서점 없는 시골학교가 수없이 많지 않은가. 이와같은 자발적 독서추진 운동의 사례는 참으로 드문 일이다.

출판저널

등록 제45호/1989년 8월 5일 발행

발행인—鄭鐵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吳愛里 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鎭
업무·광고—梁承杓 崔兌源
李義天 金收姬

등록 1987년 6월 9일—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식사

출판저널—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선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垠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吳
成完慶 宋相庸 慎鐘廈 安秉永
安輝滂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觀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映 鄭元植 鄭鐵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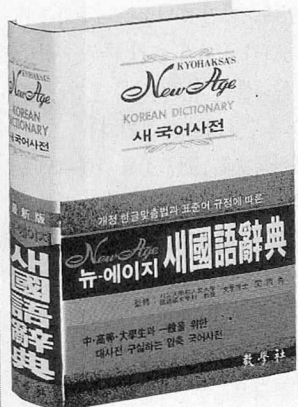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8월 2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7호(9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 에이지 새 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중국의 4대 奇書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혀져왔다. 「三國志演義」, 「水滸誌」, 「西遊記」와 더불어 4대 기서로 꼽히는 또 하나의 작품은 무엇인가?

1. 「요재지이」(聊齋志異)

2. 「열국지」(列國志)
3. 「금병매」(金瓶梅)

문제2

고대에는 식물섬유로 만든 종이인 파피루스(papyrus)로 책을 만들었다. 다년초로서 키가 2m 이상인 파피루스는 어느 강에서 많이 재배되었나?

1. 아마존 강
2. 유프라테스 강
3. 나일강

문제3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톨스토이의 대표작품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狂炎 소나타」를 쓴 작가는 누구인가? 그는 한국 최초의 단편소설 작가로도 꼽히고 있다.

1. 이광수
2. 김동인
3. 이혜조

문제4

아랍어로 씌어진 大說話集으로 유명한 작품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이다. 이 설화집의 별칭은 무엇인가?

1. 十一夜話
2. 百一夜話

3. 千一夜話

출제·홍윤기

제43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3호(6월 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72통, 이 중 정답은 129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③ 한의학

「內經」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로서, 고대로부터 구전되어 오던 것을 진한시대에 모아서 만든 책이다.

2. ② 최남선

신문학의 선구자인 육당 최남선(1890~1957)은 우리나라 최초의 新詩인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했으며, 시조집 「백발번뇌」를 비롯 「조선역사」, 「故事通」, 「朝鮮常問

答」 등 많은 작품과 저서를 남겼다.

3. ③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하여 19세기초 러시아의 사회상을 웅장한 스케일로 그린 작품이다. 다정다감한 여주인공 안나의 비련과 파멸을 그린 「안나 카레니나」, 카츄사와 네플류도프의 사랑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부정과 타락을 파헤친 「부활」은 「전쟁과 평화」와 함께 톨스토이의 3대 걸작으로 꼽힌다.

4. ②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독일의 작가 괴테가 1774년에 발표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아 주인공을 모방한 복잡까지 유행했다.

당첨자

박창호(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3-21)
양정운(성남시 하대원동 삼두아파트 2동 103호)
김수철(인천시 북구 산곡1동 재원아파트 1동 504호)
이상준(전남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3부)
주노희(경남 창원시 상남동 66)